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25. 1. 22.(수)

자료문의 : 검찰1과
전화번호 : 02-3480-2390
주책임자 : 검찰1과장

제 목

2024년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자 선정

- 대검찰청은 선행을 지속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며 검찰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양한 직원을 격려하고,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구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따뜻한 검찰인’을 선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 금년에는 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소형차가 길가에 정차 중이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발견하고, 지체없이 불이 붙은 차량에 뛰어들어 의식불명의 운전자와 출혈이 심한 동승자를 구조하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 **신세계 행정관(충주지청)**
- ② 강간 피해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살한 강간치상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실의에 빠진 피해자의 부모에게 심리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판사님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부모를 도와 법정예 동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쓰러지자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위급상황을 모면하게 한 **윤한솔 수사관(논산지청)**
- ③ 12년 전 서약한 ‘조혈모세포 기증’ 약속을 잊지 않고, “조혈모세포 이식 말고는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아 생면부지의 환자를 위해 그의 항암치료 일정에 맞추어 입원을 하고 6시간의 피를 빼는 과정을 거쳐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오예슬 수사관(서울남부지검)**

④ 감전사고로 양손을 잃고,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 된 피해자가 산업재해 보상금 5,000만 원을 사기당한 딱한 사정을 알고, 도주 중인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고, 본인의 저서인 ‘슬기로운 검사생활’ 인세 약 300만 원을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전액 기부한 정거장 검사(성남지청)

⑤ 피의자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반복한 사건을 배당받은 후, 피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한 상황에서 5일 후에는 유치 중인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출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우려하여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가 출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범행을 차단한 박소영 검사(평택지청)

⑥ 친모에 의해 5세 무렵부터 감금 상태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가스라이팅을 당한 아동학대 피해자(14세)가 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아동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 유대감을 쌓고, 전국을 수소문하여 치료 및 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치료센터 입소를 도와준 노력으로, 지금은 피해아동이 친구를 사귀고 감정도 먼저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게끔 도와준 박병훈 검사(춘천지검) 등 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심우정 검찰총장은 2025. 1. 17.(금) 수상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따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2024년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자

연번	수상자	소속	직위	선정 요지
1	신세계	충주지청	행정관 (운전 9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1a2b5c;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자동차전용도로에서 소형차가 길가에 정차 중이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발견하고, 지체없이 불이 붙은 차량에 뛰어들어 의식불명의 운전자와 출혈이 심한 동승자를 구조하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함</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1. 6. 18:30경 원주시 귀래면 소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퇴근하는 도중 우연히 마티즈 승용차가 길가에 정차 중이던 50톤 트레일러 화물차를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하였음 ○ 대상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체없이 운전 중인 차량을 세우고 사고현장으로 달려갔고, 폭발과 화재 확산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불이 붙은 사고차량에 뛰어들어 의식불명의 운전자와 출혈이 심한 동승자를 밖으로 끌어내 안전을 확보한 다음 자신의 차량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신속한 화재 진압을 도왔음 ○ 대상자의 선행은 여러 언론사 보도로 소개되었고, 원주소방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해 대상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검찰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됨과 동시에 선한 영향력 전파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음

2	윤한솔	논산 지청	수사관 (검찰 7급)	<p>강간 피해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살한 강간치상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실의에 빠진 피해자의 부모에게 심리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판사님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다” 는 피해자의 부모를 도와 법정에 동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쓰러지자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위급상황을 모면하게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6세부터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의자로부터 수회 성폭행을 당하여 그 충격으로 20대인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4세 수준으로 저하되고, 피해자가 범행에 따른 충격으로 피해진술 없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의자는 피해자가 사망하자 성폭행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음 ○ 피해자 부모는 42세에 얻은 귀한 외동딸을 잃은 아픔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지인으로부터 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으로 식이장애(부 45kg, 모 29kg) 및 자살 고위험군으로 진단되는 등 정신적·육체적 문제로 참고인 조사도 어려운 상황이었음 ○ 대상자는 위 강간치상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담당 수사관으로서, 피해자의 부모와 서로 ‘엄마·아빠, 딸’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은 구체적 피해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게 하는 등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여 사건 실체를 밝힘으로써, 피의자를 직구속하였음 ○ 또한 대상자는 딸을 잃은 부모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원활한 피해자 지원(심리상담, 경제적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님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다”는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따라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 법정 진술 기회가 마련되었는데 피해자 모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오열하다 과호흡 증상으로 실신하였음 ○ 법정에 동행한 대상자는 119 구급대원의 유선 안내에 따라 신속히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구급차 출동 전 위급상황을 모면하였음
3	오예슬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 (검찰 8급)	<div style="background-color: #1a2b7c;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10px;"> 12년 전 서약한 ‘조혈모세포 기증’ 약속을 잊지 않고, “조혈모세포 이식 말고는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가 있다” 는 연락을 받아 생면부지의 환자를 위해 그의 항암치료 일정에 맞추어 입원을 하고 6시간의 피를 빼는 과정을 거쳐 조혈모세포를 기증함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시절 우연한 기회로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이라는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으면 정상 혈액세포가 만들어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듣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 2012. 6. 5. 조혈모세포 기증에 서약하였음 ○ 그 후, 12년이 지난 2024. 6.경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에서 근무하던 중 가톨릭대학교 조혈모세포은행 협회로부터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가 있는데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 이외에는 치료방법이 없으며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에 있어서 조직적합성 항원형이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확률은 1만 명 중 1명이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음 ○ 처음에는 여러 생각이 들고 망설여졌는데, 그동안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며 그 은혜에 보답할 기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p>무엇보다 생면부지의 환자였지만 타인 간 조혈모세포가 일치할 확률이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그 환자에게는 최후의 치료수단이자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음</p> <p>○ 이후 바쁜 회사업무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환자의 항암치료 계획에 맞추어 2024. 9. 24. 건강검진 및 혈액검사를 받았고, 2024. 10. 24. ~ 10. 26. 사흘간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조혈모세포 성장인자 주사를 투여받고 2024. 10. 27.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최종 기증 준비를 마친 후 2024. 10. 29. 6시간 동안 피를 빼는 과정을 거쳐 조혈모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였음</p>
4	정거장	성남지청	검사(번시 2회)	<p>감전사고로 양손을 잃고,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 된 피해자가 산업재해 보상금 5,000만 원을 사기당한 딱한 사정을 알고, 도주 중인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고, 본인의 저서인 '슬기로운 검사생활' 인세 약 300만 원을 범죠평해자 지원 단체에 전액 기부함</p> <p>○ 피해자는 대학생 딸과 암 투병 중인 아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전기공이었는데 전신주 작업 중 감전사고로 양팔을 모두 잃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 되어 생활고를 겪고 있던 중 친족(아내의 이복 동생)인 피의자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주점에 투자를 하면 매달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산재보상금 전액인 5,000만 원을 피의자에게 넘겨주었음</p> <p>○ 그런데 피의자는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급기야 연락을 끊어 버렸던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산재보상금을 노리고 피해자에 접근하였던 것임</p>

-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017. 6. 15.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지만 피의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린 상태여서 피해금원을 돌려받기는 희박한 상황이었고, 껄스름한 마음에 2017. 12. 27.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지만, '민사소송 제기일'을 형사소송법상 '범인을 알게 된 날'로 보는 다수 판결례에 비추어 보면 역수상 친족인 피의자에 대한 고소기간(6개월)이 지나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대상자는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판례 및 관련 논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례들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을 유동적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민사소송 기록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시기를 '민사소송 확정일(적어도 변론종결일)'로 볼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한 뒤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함
- 한편, 피의자가 도주 중으로 소재불명인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수사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9. 8. 27. 피의자를 검거하여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한편, 대상자는 2022. 2.경 초임검사 시절 경험담을 담은 수필집 '슬기로운 검사생활'을 출판하여 얻은 인세 수익 약 300만 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액 기부함

5	박소영	평택 지청	검사 (변시 9회)	<p>피의자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반복한 사건을 배당받은 후, 피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한 상황에서 5일 후에는 유치 중인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출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우려하여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가 출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범행을 차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는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동일 피해자에 대해 재차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사건을 배당받은 후 피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하여 스토킹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구치소 유치 기간이 5일밖에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우려하여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바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였음 ○ 이후 피의자의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사건도 수사 중인 사실, 성폭력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구속전피의자심문 일시가 피의자의 잠정조치 유치 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 당일 오전 11:00로 지정됨 ○ 피의자가 심문 당일 05:00에 석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면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하여, 곧바로 법원에 심문기일을 석방 전날(일요일)로 앞당겨 주도록 요청하고, 대상자가 직접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직구속 기소하였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5일 안에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차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기여함
6	박병훈	춘천 지점	검사 (변시 11회)	<p>친모에 의해 5세 무렵부터 감금 상태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가스라이팅을 당한 아동학대 피해자(14세)가 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아동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다가가 유대감을 쌓고, 전국을 수소문하여 치료 및 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치료센터 입소를 도와준 노력으로, 지금은 피해아동이 친구를 사귀고 감정도 먼저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게끔 도와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6. 25.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아동(14세)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피해아동을 깨워 뺨과 머리를 때린 혐의로 친모가 구속송치된 사건이 접수되었음 ○ 대상자는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주임 검사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피해아동(14세)을 5세 무렵부터 폭행하고 '2달에 한 번 외출'시키며 홈스쿨링을 강요하는 등 폐쇄적인 성장환경을 구축하였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라며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피해아동이 적대적 반항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2024. 7. 2. 피해아동이 임상심리평가 진행 중 민원인 대기실에서 게임을 하며 모든 대화를 거부하자, 대상자는 피해아동 옆에 앉아 30분간 피해아동이

게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떤 게임인지' 등을 물으며 라포를 형성하자, 피해아동이 대상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임상심리평가가 진행될 수 있었음

- 이후 대상자는 2024. 8. 18. 피해아동의 쉼터에 방문하여 간식과 포켓몬카드를 선물하며 대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아동과 유대감을 형성함
- 한편, 대상자는 아동학대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2024. 7. 5. 및 2024. 8. 22.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회의를 열어, 피해아동의 치료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기관을 '병원형 Wee' 센터(정신적 치료 및 학교교육을 병행하는 기관)로 결정함
- 2024. 8. 하순경 지역 내 '병원형 Wee' 센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병원형 Wee' 센터에서는 모두 '관내 학생이 아니면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음
- 그럼에도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피해아동의 절박한 사정을 알리면서 전국의 치료센터를 수소문한 끝에 입소가 가능하다는 센터를 찾아내어 피해아동의 입소를 도왔음
- 현재 피해아동은 '병원형 Wee' 센터에서 잘 적응하여 친구를 사귀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먼저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으며, '병원형 Wee' 센터 치료(평균 치료기간 3개월)가 끝나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아동과 교류를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